

# 『사기』 유전(類傳) 속의 주연과 조연

김병준\*\*

『사기』 권86 「자객열전」의 서사 분석\*

**초록** 『사기』 속 유전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인간 유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된 합전과 달리 『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자객열전」도 춘추시기부터 전국시기까지 5명의 자객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士爲知己者死)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전이다. 그러나 「자객열전」은 다른 유전과 달리 「여불위열전」과 「이사열전」 사이에 놓여있다. 이는 형가가 「자객열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자객열전」이 진시황 시기 형가를 주연으로 두고 네 명의 자객을 조연으로 삼아, 이들의 이야기를 서로 긴밀하게 엮어가며 형가의 진왕 자살(刺殺)의 실패라는 주제를 풀어나갔던 서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사마천은 진왕 살해 실패의 원인을 형가의 검술이 아니라, 태자 단과 형가 사이에 형성되지 못한 신뢰, 태자 단의 어설픈 계획과 조급함, 개입, 불인(不忍)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형가가 원래 계획이 흐트러진 마지막에서조차 태자 단의 뜻대로 자살(刺殺)하지 않고 겁박(搥)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실패의 책임이 형가의 검술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사마천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객 4명과 그들을 알아준 주군과의 서사를 형가와 태자 단의 서사와 촘촘히 대비시키는 서사 구조를 구성하였다.

**주제어**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 형가, 태자 단, 조말(曹沫), 전제(專諸), 예양(豫讓), 섭정(聶政)

\* 본 연구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동양사학전공 교수

## 1. 머리말

『사기』 「백이열전」에는 사마천의 열전 편집 방향과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 핵심은 백이와 숙제, 안연과 같이 도덕적 당위로서의 천도를 구현한 현자나 열사들은 이미 공자와 같은 선현들에 의해 잘 알려졌지만, 산속이나 작은 마을에서 덕행을 닦거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마천 자신과 같은 역사가가 찾아내어 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sup> 그래서 그는 이전의 다른 역사와 달리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는 평범한 개인들을 『사기』 열전 속에 담으려고 했다. 야심찬 계획이긴 했지만, 정작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제한된 편폭에 담아내기에는 그 수가 너무도 많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열전에 넣을 수는 없었다. 사마천이 찾았던 해결 방식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의 열전에 묶는 것이었다. 이른바 합전이다.

『사기』 열전 70권의 제목을 일별해 보면, 합전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군상을 담으려는 그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명을 주인공으로 하는 단일 열전보다 여러 명을 하나의 열전으로 묶은 합전의 수가 훨씬 많다. (A) 열전 제목에 한 명의 인명만이 표기된 것은 전체 70권 중 27권, 39%이다.<sup>2</sup> 그 나머지 열전은 하나의 열전에 여러 명의 인물이 엮여져 있는 합전이다. 이 합전은 다시 (B) 제목이 2명 이상 여러 명의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26권,

1 『사기』 권61 「백이열전」 “伯夷、叔齊雖賢，得夫子而名益彰。顏淵雖篤學，附驥尾而行益顯。巖穴之士，趣舍有時若此，類名堙滅而不稱，悲夫！閭巷之人，欲砥行立名者，非附青雲之士，惡能施于後世哉？”

2 이 중에는 비록 단일 인명으로 열전의 제목이 달렸지만, 주인공과 친족관계 혹은 주객관계로 맺어진 인물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다. 이를 빼면 단일 인명의 열전은 34%에 불과하다. 가령 권70 「장의열전」에는 장의 외에 진진을 “陳軫者，游說之士”로, 서수를 “犀首者，魏之陰晉人也，名衍，姓公孫氏”로, 권88 「몽염열전」에는 몽염 외에 조고를 “趙高者，諸趙疏遠屬也”로, 권96 「장승상열전」에는 장창 외에 주창을 “周昌者，沛人也”로, 임오를 “任敖者，故沛獄吏”로, 신도가를 “申屠丞相嘉者，梁人”으로 입전하였다.

37%)와,<sup>3</sup> (C) 다수의 인물을 유형화하여 인명 대신 그 분류 항목으로 제목을 단 이른바 유전(類傳, 11권, 16%), 그리고 (D) 외국열전(6권, 9%)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명을 하나의 열전에 묶어 합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간에 살았던 자라는 공통점이 고려되었다. (B)의 많은 경우 동일한 시기와 지역에서 활약하면서 비슷한 역할을 했던 자들을 하나의 열전으로 묶었다.<sup>4</sup> 그렇다고 항상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을 묶어 합전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B) 중에는 비슷한 점을 공유하면서도 상반된 성격을 가진 자들을 묶은 사례가 적지 않다.<sup>5</sup>

합전 중에는 여러 인명을 열전 제목에 넣었던 (B) 외에 인물의 유형을 열전의 제목으로 삼았던 (C) 유전이 있다. 하지만 (B) 중에는 「맹자순경열전」처럼 10명 이상의 인물을 입전해도 여전히 인명을 열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경우가 있는 반면, (C) 중에는 「골계열전」처럼 3명만 입전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일자열전」처럼 1명만 입전하였지만 인물 유형으로 제목을

3 제목에 2명의 이름만 있어도 열전 안에는 적게는 1명, 많게는 10여 명의 인물이 함께 입전되기도 한다.

4 가령 권93 「한신노관열전」의 두 주인공인 한신과 노관은 모두 한 고조 시기 제후왕으로 봉해진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모두 한에 반란을 일으킨 죄로 제거된 자들이었다. 권95 「번영등관열전」의 번쾌, 역상, 등공, 관영도 고조 시기의 인물이지만 모두 고조 유방을 곁에서 섬기며 많은 군공을 세운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권97 「역생육가열전」의 역생과 육가는 고조 시기 외교의 측면에서 역할을 했던 자, 권99 「유경숙손통열전」은 고조 시기의 인물로 한조 국가의 틀을 마련한 유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5 권81 「염파인상여열전」의 염파와 인상여는 동일한 시기, 동일하게 조나라에서 上卿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지만, 염파는 전투에서 군공을 세워서 그 자리에 오른 자인 반면, 인상여는 뛰어난 화술로 공경의 자리에 올랐다. 권71 「저리자감무열전」의 저리자와 감무는 역시 진 혜왕에서 무왕을 거쳐 소양왕에 이르기까지라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나라에서 활약했던 자들이며 무왕 때에는 각각 좌·우승상을 맡은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저리자는 왕실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중용되었던 반면 감무는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통해 발탁되었던 인물이었다.

달았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열전 제목에 많은 인명을 넣을 수 없어서 (C)를 설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합전 (B)가 동일한 시공간에서 살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비슷하고 때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열전에 입전된 반면, (C)는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의 유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인물들을 묶어 하나의 열전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C)를 “과편화된 원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군상을 보여주는 사회사적 개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sup>6</sup> (B)가 동 시기에 활약했던 자들을 묶음으로써 그 시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C)는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 유형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전과 유전을 들춰보면 열전 안에 여러 명의 인물이 한 명씩 입전되어 있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몇 사람의 개별 열전이 묶여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하나의 열전에 여러 명이 동시에 입전되어 있으므로 그들 사이의 공통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입전된 여러 인물을 독립된 개체로 읽어낼 뿐 그 인물들을 엮고 있는 별도의 정치한 내러티브를 찾아내려고까지 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맹자순경열전」과 「저리자감무열전」을 통해 합전 속에 깔려 있는 내러티브를 확인한 바 있다. 「맹자순경열전」에 입전된 10여 명의 인물의 배치는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내러티브의 결과였다. 열전의 서두에 맹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였으면서도 본문에서는 맹자의 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인물을 중간에 길게 배치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利)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겠다는 뜻이었다. 또 마지막에 순자를 배치한 것도 사상적으로 맹자와 연결되어

6 楊照(2019), 「酷吏列傳: 爲何酷吏總是成群地來」, 『史記的讀法』,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 413.

보이지만 그 사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태도는 오히려 중간에 배치된 인물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서술 전략이었다.<sup>7</sup> 「저리자감무열전」도 2명의 인물을 차례대로 입전했지만 저리자열전과 감무열전은 결코 독립적인 열전의 병렬이 아니라 2명의 열전 속 문장 하나, 단락 하나가 상호간에 연결되어 서로를 명확히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8</sup> 합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사되고 있었다.

유전의 경우에는 어떨까? 유전은 합전보다 인물 간의 유사성이 더 강조되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입전된 인물 사이에 얽힌 관계망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객열전」은 여러 명의 자객이 입전된 열전, 「순리열전」은 여러 명의 순리, 「혹리열전」은 여러 명의 혹리가 각각 입전된 열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서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혹은 그들에 대한 서술이 왜 그러한 순서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합전에 입전된 여러 인물이 단순한 개별 열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선택과 배치, 서술방식이 긴밀하게 엮여 있었다면 유전 역시 그렇게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하에 대표적 유전인 「자객열전」을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각 유전 속 인물에 대한 서술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그 인물이 왜 선택되었고 왜 그렇게 기술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김병준(2021), 「사마천은 왜 책을 덮었을까?: 『사기』 권74 맹자순경열전의 서사 분석」, 『동아문화』(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59.

8 김병준(2024), 「사마천의 풍자 그리고 합전의 서사: 『사기』 권71 저리자감무열전의 분석」, 『동아문화』(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61.

## 2. 「자객열전」의 위치

「자객열전」에는 5명의 인물이 나란히 입전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군을 위해 칼로 그 대상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객이다. 동일한 유형에 속한 인물을 하나의 열전에 여럿 배열함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유형으로서 존재했음을 드러내려는 전형적 유전(類傳)이다.

사마천은 「자객열전」을 마무리하는 〈태사공왈〉에서 “조말부터 형가에 이르기까지 5명의 자객은 그 의행(義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이들의 목적이 뚜렷했고 그 자신들의 뜻을 끝까지 저버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들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 되겠는가?”라고 했다.<sup>9</sup> 즉 사마천은 비록 성공 여부 등 일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이들을 모두 의행을 끝까지 이루려고 했던 자들로서 후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자객이라는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 묶어 이해했다.

더욱이 「자객열전」은 자객이라는 인간 유형이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늘 존재했던 자들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방식을 사용했다. 5명의 자객은 춘추시기부터 전국시기까지 긴 시간에 걸쳐 있는데, 사마천은 각별히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을 추가했다. 그는 첫 번째 자객인 조말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 후 167년 뒤 오나라에 전제의 사건이 있었다(其後百六十有七年而吳有專諸之事)”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나서 전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전제의 이야기가 끝난 뒤 다시 “그 후 70여 년 뒤에 진나라에 예양의 사건이 있었다(其後七十餘年而晉有豫讓之事)”라는 구절을, 예양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 후 40여 년 뒤 지 땅에 섭정의 사건이 있었다(其後四十餘年而軹有聶政之事)”라는 구절을, 섭정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 후 220여 년 뒤 진나라에 형가의 사건이 있었다(其後二百二十餘年秦有荊軻之事)”라는 구절

9 『사기』 권86 「자객열전」 “太史公曰：[...] 自曹沫至荊軻五人，此其義或成或不成，然其立意較然，不欺其志，名垂後世，豈妄也哉！”

을 덧붙이고 다음의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그 시간을 더하면 조말부터 전체, 예양, 섭정을 거쳐 형가에 이르기까지 497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태여 5명의 자객 사이의 시간적 경과를 기록했던 것은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이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sup>10</sup>

5명의 자객 사이의 내적 연계를 좀 더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가 있다. 맨 처음 등장한 자객인 조말이 맨 마지막 자객인 형가의 열전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태자 단이 형가를 만나서 거사를 부탁할 때 “만약 조말이 제환공에게 했던 것처럼 진왕을 겁박하여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sup>11</sup> 거사가 실패한 뒤 형가가 “거사가 실패한 까닭은 죽이지 않고 산 채로 겁박을 해서 약속대로 연태자 단에게 보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sup>12</sup> 했던 것도 조말의 사례대로 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형가열전과 조말열전을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열전의 서두를 장식한 조말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위치한 형가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다면 비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3명의 자객의 인명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도 이들의 이야기도 역시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 자객과 자객 사이의 시간적 경과를 기록하여 이들 사이의 연계를 부각시킨 것도 이들 사이의 내적 연계를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자객열전」에 입전된 5명의 자객 중 4명은 춘추시대의 인물인 반면, 마지막 인물인 형가는 전국시대 말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10 『사기』 권110 「홍노열전」에는 역사적 사실을 ‘其後’, ‘其後~歲’라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그것들이 독립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되도록 서술했다[김병준(2016), 「홍노열전의 ‘홍노 前史’ 기록 검토」, 『중앙아시아연구』 21-1].

11 『사기』 권86 「자객열전」 “誠得劫秦王, 使悉反諸侯侵地, 若曹沫之與齊桓公, 則大善矣; 則不可, 因而刺殺之.”

12 『사기』 권86 「자객열전」 “事所以不成者, 以欲生劫之, 必得約契以報太子也.”

그 의미는 전체 열전 중 「자객열전」의 위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사기』의 70권 열전 중에 유전으로 분류되는 열전은 거의 대부분 열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 본격적인 유전이라고 해야 할 열전은 권119 「순리열전」부터 권129 「화식열전」까지 권120 「급정열전」 하나만을 제외하고 죽 이어져 있다. 「순리열전」 앞까지는 한무제 시대의 인물을 시간 순서대로 입전했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유전에는 춘추시대 인물부터 무제시기까지의 인물이 모두 아우러졌다. 유전의 형식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사회적 군상을 유형화하려고 했던 이상, 한무제 시기까지의 인물에 대한 서술이 모두 끝난 뒤 마지막 부분에 유전을 모아 놓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자객열전」만이 이들과 동떨어져 권85 「여불위열전」과 권87 「이사열전」, 권88 「몽염열전」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자객열전」은 비록 유전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열전 뒷부분에 모여진 유전과는 달리,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된 열전 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적 순서에 의미를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객열전」은 진시황이 즉위하는 과정부터 노애의 반란을 계기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까지의 내용이 담긴 「여불위열전」과, 6국 통일 이후의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진2세의 즉위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사열전」, 역시 진2세의 즉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몽염열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는 진왕정이 권력을 장악한 시점부터 통일 이전의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열전 속 5명의 자객 중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자는 형가이므로, 형가라는 인물이 이 열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며, 조말부터 섭정까지의 4명은 형가를 서술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서 덧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자객열전」의 5명 자객 중 형가 부분이 가장 길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자객열전」 속 5명의 자객을 4명의 조연과 형가 1명의 주연으로 보았던 견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sup>13</sup> 다만 형가가 더 중요한 인물로 서술되었

— www.kci.go.kr

13 김원중·심은경(2024), 「『사기』 자객열전 ‘형가전’의 서사 기법 연구」, 『유학연구』 66 등.

다는 차원에서 지적이었을 뿐이다. 필자는 사마천의 서사에 주목한다. 형가를 4명의 조연과 같이 묶어 유전의 형식을 취했던 까닭은 4명의 조연에 대한 서사를 통해 주연 형가에 대한 서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조연들의 서사가 형가의 서사와 얽혀져 그 의미를 비춰주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객열전」의 치밀한 서사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 3. 형가열전 분석

먼저 「자객열전」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형가열전의 서사를 분석해 보겠다. 어느 열전과 마찬가지로 형가열전도 그 서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이해할 경우 많은 오해가 생긴다. 특히 의미 없어 보이는 단락이나 글귀가 전체 이야기 구조 속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야 비로소 사마천의 서사 의도를 찾아낼 수 있다. 또 그래야 춘추 시기 4명의 서사 구조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분명해진다.

#### 3.1. 기다림<sup>14</sup>

㉑-1 형가는 위(衛)나라 사람이다. 그 조상은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위나라로 옮겨 왔다.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경(慶卿)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연나라로 갔을 때 연나라 사람들은 그를 형경(荊卿)이라고 불렀다. ㉑-2 형경은 독서와 격검(擊劍)을 좋아했다. ㉑-3 [위(魏)가 위회군(衛懷君)을 폐하고 대신 세운] 위원군(衛元君)에게 술(術)로 유세했으나 위원군은 그를 등용하

14 李紀祥(2007), 「歷史與歷史劇 - 「豫讓」敍事與歷史塑成」, 『史記五論』, 文津出版에서는 「자객열전」의 흐름을 '待-遇-報'로 파악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차용해 '기다림-만남-준비-결행-그 후'의 순서로 구분했다.

지 않았다. ㉔-4 (그 결과) 이후 (위원군 14년) 진나라가 위(魏)나라를 정벌하고 [위(衛)가 있던 곳도 포함하여] 동군(東郡)을 설치하고는 위원군의 일족을 [위(衛)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야왕(野王)으로 이주시켰다.<sup>15</sup>

열전의 첫머리에는 몇 가지 사항이 간단히 나열되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술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격검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자객으로서의 형가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욱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㉔-1), 형가가 독서와 격검을 좋아했다는 것(㉔-2), 형가가 위원군에게 등용되지 못했다는 것(㉔-3), 위 원군이 야왕으로 쫓겨갔다는 것(㉔-4)은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사마천의 서사 의도가 보인다.

먼저 그의 조상이 제나라 사람이지만 위나라로 옮겨 왔다고 한 것은 형가 본인이 위나라에서 태어나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며, 그 위나라 사람인 형가가 나중에 연나라에 갔을 때에는 형경이라고 불리웠지만 본래 고향인 위나라에서는 경경이라고 불렀다고 했다(㉔-1). 이 사실을 굳이 기재한 까닭은 위나라에서 경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사마천이 판단하기에 그 자가 곧 연나라 자객 형경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를 근거로 사마천은 위나라에서 위원군에게 유세한 경경의 행적도 곧 형가의 행적이라고 등치시킬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사마천은 형가가 위원군에게 유세했고 위원군이 그를 등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㉔-3) 말하기 위해 그 판단 근거를 먼저 제시했던 것이다.

사마천은 위원군이 형가를 등용하지 않았다고 한 뒤(㉔-3) 위원군의 일족이 다른 곳으로 천사되었다는 사실을 이어 기록했다(㉔-4). 이 사실은 진

15 『사기』 권86 「자객열전」 “荊軻者，衛人也。其先乃齊人，徙於衛，衛人謂之慶卿。而之燕，燕人謂之荊卿。荊卿好讀書擊劍，以術說衛元君，衛元君不用。其後秦伐魏，置東郡，徙衛元君之支屬於野王。”

나라가 위나라를 함락시킨 뒤 그 군주와 일족을 야왕으로 이주시켰다는 『사기』 「진시황본기」와 「위강숙세가」 기록과<sup>16</sup> 일치한다. 다만 「형가열전」에서는 ㉠-3과 ㉠-4를 붙여 씌으로써 위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까닭이 위원군이 경경 즉 형가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1이 ㉠-3과 ㉠-4의 근거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형가가 독서와 격검을 좋아했다는 말(㉠-2)은 왜 가운데에 끼어들어갔을까? 그 까닭은 형가가 위원군에게 술(術)으로써 유세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1 이외에 ㉠-2도 ㉠-3, ㉠-4의 또 다른 근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형가가 「자객열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가 위원군에 유세하였던 사실에 의아해 할지 모르는 독자를 위해 사마천은 형가가 그의 재능으로서 격검만이 아니라 독서를 좋아했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이다.

요컨대 ㉠-1은 ㉠-3, 4가 형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사료적 판단 근거가 되고, ㉠-2도 역시 ㉠-3, 4가 발생하게 된 조건을 말하고 있다. 즉, ㉠-1, 2는 ㉠-3, 4의 근거다. 사마천은 형가에게는 자객으로서 기대되는 격검이라는 재능 이외에 독서를 통해 뛰어난 술(術)을 갖추었다는 점, 나아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위나라가 멸망의 길에 접어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록하였다. 형가가 독서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후술하듯 형가가 연나라에 도착한 뒤에도 잠깐 다시 언급된다. 형가는 고점리와 개잡는 백정들과 술을 마시며 놀면서도 그 사람됨이 신중하며 독서를 좋아했고 그래서 현인, 호걸, 장자와 사귀었다고 했다.

“형가가 독서와 격검을 좋아했다.”라는 구절(㉠-2) 중 먼저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단락에서는 형가의 격검에 대해서 언급했다.

16 『사기』 권6 「진시황본기」 “(六年)拔衛，迫東郡，其君角率其支屬徙居野王，阻其山以保魏之河內.”; 『사기』 권37 「위강숙세가」 “懷君三十一年，朝魏，魏囚殺懷君，魏更立嗣君弟，是爲元君。元君爲魏婿，故魏立之。元君十四年，秦拔魏東地，秦初置東郡，更徙衛野王縣，而并濮陽爲東郡。”

㉑-1 형가가 일찍이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조나라의) 유차(榆次)를 지날 때였다. 갑섭(蓋聶)과 검에 대해서 논하다가(論劍) ㉑-2 갑섭이 화를 내며 노려보자(目) 형가는 나가버렸다. 사람들이 형경을 다시 부르라고 하자 갑섭이 말하기를, “지난번 내가 그와 검을 논한 적이 있는데(論劍) 그와 의견이 맞지 않는 바가 있어서 내가 노려보았던(目) 적이 있다. 한번 가봐라. 이번에는 분명히 떠나 버렸을 것이다. 감히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을 시켜 주인에게 가보게 했더니 형경은 이미 수레를 몰고 유차를 떠나 버리고 난 뒤였다. ㉑-3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고하자 갑섭이 말하기를 “정말 떠났군. 사실 지난번에는 내가 (그냥 노려본 것이 아니라) 노려보며 성을 냈었는데도(目攝) (떠나지 않더니만!)”이라고 하였다.<sup>17</sup>

형가와 갑섭이 검에 대해 논하였다는 것이(㉑-1) “형가가 격검을 좋아했다”(㉑-2)에 해당한다. 독서를 좋아했지만 위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한 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 유차라는 곳까지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검술에 대해 갑섭과 논했는데 역시 상대방과 견해가 맞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갑섭의 말이 앞뒤로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글자 하나의 이동(異同)에 불과하지만, 앞에는 단지 ‘목지’(目之)라고만 했는데(㉑-2) 뒤에는 ‘섭’(攝) 자를 덧붙여 ‘목섭지’(目攝之)라고 했다(㉑-3). 즉 갑섭이 처음에 화가 나서 노려보자(目之) 형가가 자리를 떴을 때 “지난번에 오늘처럼 노려보았던(目之)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떠나버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진짜 떠난 걸 확인하고는 “사실은 지난번에 노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려보며(目) 성까지 냈었지(攝之).”라고 했다. 갑섭은 떠나 버린 사실에 약간 당황해하며 “내가 노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화까지 냈었는데도 떠나지 않더니 지금은 노려보기만 했는데 떠났군.”이라

17 『사기』 권86 「자객열전」 “㉑-1 荊軻嘗游過榆次，與蓋聶論劍，㉑-2 蓋聶怒而目之。荊軻出，人或言復召荊卿。蓋聶曰：「曩者吾與論劍有不稱者，吾目之；試往，是直去，不敢留。」使使往之主人，荊卿則已駕而去榆次矣。㉑-3 使者還報，蓋聶曰：「固去也，吾曩者目攝之！」”

고 했던 것이다.

이 일화에서는 갑섭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형가를 쫓아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인 형가의 입장에서 이 일화를 읽으면, 첫 번째 만남에서 갑섭이 형가를 노려보고 성을 냈는데도 형가가 이를 참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노려보기만 했어도 나간 뒤 아예 머물던 곳에서 떠나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격검에 대해 견해가 맞지 않으면 성질을 부려도 한 번은 참고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만, 또다시 화를 내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모습은 다음 단락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 형가가 한단에서 노닐 때였다. 노구천이 형가와 육박을 두다가 (놀이판) 길을 다투었다. ◎-2 노구천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형가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나 버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sup>18</sup>

이번에는 검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놀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다(◎-1). 비록 놀이를 하는 도중에 생긴 일이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노구천이 소리를 지르자 이에 형가는 아무 말 없이 나가 버렸다(◎-2). 다만 지난번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이 화를 내도 한 번은 참았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떠나 버렸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까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를 단호하게 끊었던 형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위원군에 술(術)로 유세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위나라를 떠나 북쪽 병주(并州)에 위치한 유차로<sup>19</sup> 갔다. 두 번째는 갑섭과 검술에 대해 논했는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상대

18 『사기』 권86 「자객열전」 “◎-1 荊軻游於邯鄲，魯句踐與荊軻博，爭道，◎-2 魯句踐怒而叱之，荊軻嘿而逃去，遂不復會。”

19 『사기』 권86 「자객열전」 “榆次”의正義注，“并州縣也。”

방이 화를 내자 한 번은 참았으나 다음 차례에는 논쟁하지 않고 수레를 타고 떠났다. 세 번째는 육박 놀이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아무 말 없이 한단을 떠나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비록 ‘알아주다’라는 ‘지’(知) 대신 ‘불용’(不用) ‘불칭’(不稱) ‘쟁도’(爭道)라고 표현했지만 눈으로 흘긴다든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이어져 자신의 뜻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상태, 바뀌 말하면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상황을 묘사하였다. 즉 형가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와 격검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경우만이 아니라 육박 놀이에서조차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으면 그 상대방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와 반대로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로 바뀌게 된다.

㉑-1 형가가 연나라에 도착해서는 연나라에서 개를 잡는 백정과 축을 잘 타는 고점리를 좋아했다. ㉑-2 형가가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개 잡는 백정과 고점리와 함께 연나라 시장에서 술을 마셨다. 술이 얼큰하게 오르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가 이에 화답하여 시장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거워하다가 다시 얼마 후에는 서로 울기도 하기를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듯이 했다. ㉑-3 형가는 비록 술꾼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지만 그 사람됨이 신중하고 독서를 좋아했다. ㉑-4 그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에는 현인, 호걸, 장자(長者)와 사귀었고, 연나라에 가서는 연나라의 처사인 전광 선생이 역시 그를 잘 대해 주었는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sup>20</sup>

20 『사기』 권86 「자객열전」 “㉑-1 荊軻既至燕，愛燕之狗屠及善擊筑者高漸離。㉑-2 荊軻嗜酒，日與狗屠及高漸離飲於燕市，酒酣以往，高漸離擊筑，荊軻和而歌於市中，相樂也，已而相泣，旁若無人者。㉑-3 荊軻雖游於酒人乎，然其爲人沈深好書；㉑-4 其所游諸侯，盡與其賢

연나라에 도착해서는 이전과 달리 자신을 알아주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부류는 개 잡는 백정과 축 타는 악인(樂人) 고점리 같은 자였다(㉔-1). 술을 좋아하는 형가는 그들을 아껴 늘 함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술이 오르면 시장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울기도 하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㉔-2). 그렇지만 형가가 사귀었던 자들 중에는 첫 번째 부류와 사뭇 다른 자들도 있었다. 형가가 사귀었던 두 번째 부류는 현자, 호걸, 장자들이었다(㉔-4). 그들은 형가의 사람됨이 신중하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형가와 교유했다(㉔-3).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의 사귀는 형가의 재능과 무관한 것이었고 또 그들과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다. 연나라에서 만난 전광 선생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전광 선생도 여러 나라의 현자나 호걸처럼 형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는 잘 대해주었다. 형가가 사귀었던 이 두 부류는 비록 그 성격상 크게 다르지만 모두 형가를 알아준(知) 자들이었다. 형가가 이들에게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바로 앞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갑섭과 노구천에 대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태도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 3.2. 만남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와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형가가 과연 어떻게 태자 단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사마천은 연나라의 태자 단과 형가가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길게 서술하였다.<sup>21</sup>

豪長者相結. 其之燕, 燕之處士田光先生亦善待之, 知其非庸人也.”

21 『사기』 권86 「자객열전」 “㉔-1 居頃之, 會燕太子丹質秦亡歸燕. 燕太子丹者, 故嘗質於趙, 而秦王政生於趙, 其少時與丹驩. 及政立爲秦王, 而丹質於秦. 秦王之遇燕太子丹不善, 故丹怨而亡歸. 歸而求爲報秦王者, 國小, 力不能. ㉔-2 其後秦日出兵山東以伐齊、楚、三晉, 稍

먼저 태자 단이 진나라에 복수를 하려고 했던 연원을 적었다. 태자 단이 어렸을 때에는 진왕 정과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진나라에 질자로 가 있었을 때에는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㉔-1). 사마천은 이어서 당시 연나라가 처해 있는 열악한 국제 상황을 설명하였다(㉔-2).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개인적 복수를 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사마천의 의도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태자 단이 자신의 스승인 국무에게 그 뜻을 내비쳤더니(㉔-3), 국무는 강력한 진나라가 주변 국가를 침탈하는 작금의 국제 환경을 나열하고 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진나라의 역린을 건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㉔-4). 즉 이 단락은 ㉔-1 태자 단 개인의 복수, ㉔-2 당시의 국제 환경의 기술을 다시 한번 ㉔-3 태자 단의 문의, ㉔-4 당시 국제 환경을 인용한 국무의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반복했다. 애초부터 개인적 원한에 의한 태자 단의 진나라 공격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서사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자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방법을 물었고(㉔-5), 국무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면서 회답을 피했다(㉔-6).

사마천은 태자 단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을 기록했다.<sup>22</sup> 진

蠶食諸侯，且至於燕，燕君臣皆恐禍之至。㉔-3 太子丹患之，問其傅鞠武。㉔-4 武對曰：「秦地遍天下，威脅韓、魏、趙氏，北有甘泉、谷口之固，南有涇、渭之沃，擅巴、漢之饒，右隴、蜀之山，左關、穀之險，民眾而土厲，兵革有餘，意有所出，則長城之南，易水以北，未有所定也。柰何以見陵之怨，欲批其逆鱗哉！」㉔-5 丹曰：「然則何由？」㉔-6 對曰：「請入圖之。」

- 22 『사기』 권86 『자객열전』 “㉔-1 居有間，秦將樊於期得罪於秦王，亡之燕，太子受而捨之。㉔-2 鞠武諫曰：「不可。夫以秦王之暴而積怒於燕，足為寒心，又況聞樊將軍之所在乎？是謂『委肉當餓虎之蹊』也，禍必不振矣！雖有管、晏，不能為之謀也。願太子疾遣樊將軍入匈奴以滅口。請西約三晉，南連齊、楚，北購於單于，其後乃可圖也。」㉔-3 太子曰：「太傅之計，曠日彌久，心惓然，恐不能須臾。且非獨於此也，夫樊將軍窮困於天下，歸身於丹，丹終不以迫於彊秦而棄所哀憐之交，置之匈奴，是固丹命卒之時也。願太傅更慮之。」㉔-4 鞠武曰：「夫行危欲求安，造禍而求福，計淺而怨深，連結一人之後交，不顧國家之大害，此所謂『資怨而助禍』矣。夫以鴻毛燎於爐炭之上，必無事矣。且以鷙鷲之秦，行怨暴之怒，豈足道哉！燕有田光先生，其為人智深而勇沈，可與謀。」㉔-5 太子曰：「願因太傅而得交於田先生，可乎？」㉔-6 鞠武曰：「敬諾。」出見田先生，道「太子願圖國事於先生也」。田光曰：「敬奉教。」乃造焉。”

양에게 죄를 짓고 도망해 온 진나라 장군 번오기를 태자 단이 받아들여려고 했고(㉑-1), 이에 국무는 앞 단락에서 이야기한 연나라가 처한 어려움에 더해 진왕의 노여움을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번오기를 흉노에 보내어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할 구실을 없애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맹약을 맺어 진나라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㉑-2). 그러나 태자 단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조급함과, 냉혹한 현실보다 “차마 인정을 버리지 못하는 유약함”을 드러내었다(㉑-3). 국무는 세 번째 간언을 했다. 어찌 깃털 같은 연나라가 흉포한 진나라를 도발하려고 하는가, 위험한 일을 하며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㉑-4). 하지만 국무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태자 단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나며 그 대신 전광 선생을 소개했다.

이어서 태자 단은 예의를 갖춰 전광을 맞이하지만 연나라와 진나라가 양립할 수 없다는 훨씬 강한 어조로 전광을 압박했다(㉒-1).<sup>23</sup> 전광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역시 늙어서 쇠약해진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신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형가와 일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하였다(㉒-2). 전광은 형가에게도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자신 대신에 태자 단을 만나달라고 부탁했고, 형가는 이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형가가 태자 단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다.

이상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태자 단이 형가를 직접 알아본 것

23 『사기』 권86 「각역열전」 “㉑-1 太子逢迎，卻行爲導，跪而蔽席。田光坐定，左右無人，太子避席而請曰：「燕秦不兩立，願先生留意也。」 ㉑-2 田光曰：「臣聞騏驎盛壯之時，一日而馳千里；至其衰老，駑馬先之。今太子聞光盛壯之時，不知臣精已消亡矣。雖然，光不敢以圖國事，所善荊卿可使也。」 ㉑-3 太子曰：「願因先生得結交於荊卿，可乎？」 ㉑-4 田光曰：「敬諾。」即起，趨出。 ㉑-5 太子送至門，戒曰：「丹所報，先生所言者，國之大事也，願先生勿泄也！」 ㉑-6 田光俛而笑曰：「諾。」 ㉑-7 僕行見荊卿，曰：「光與子相善，燕國莫不知。今太子聞光壯盛之時，不知吾形已不逮也。幸而教之曰『燕秦不兩立，願先生留意也。』光竊不自外，言足下於太子也，願足下過太子於宮。」 ㉑-8 荊卿曰：「謹奉教。」 ㉑-9 田光曰：「吾聞之，長者爲行，不使人疑之。今太子告光曰：『所言者，國之大事也，願先生勿泄。』是太子疑光也。夫爲行而使人疑之，非節俠也。」欲自殺以激荊卿，曰：「願足下急過太子，言光已死，明不言也。」因遂自刎而死。”

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자 단은 맨 처음 자신의 스승인 국무에게 요청했으나 국무가 반대하며 물러나면서 생각이 깊고 용감한 전광을 소개하였고, 전광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모른 척할 수 없어서 형가를 소개했다. 그 까닭은 연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전광과 형가가 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㉔-7). 형가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㉔-4) 전광이 직접 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태자와의 만남을 응낙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자인 전광이었기 때문에 태자 단의 계획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마천이 굳이 태자 단과 국무, 태자 단과 전광의 대화를 길게 인용한 것도 그 목적은 여기에 있다.

태자 단과 형가의 만남은 조금 더 극적이다. 비록 형가의 능력을 알아준(知) 전광이지만 혹시라도 형가가 마음이 바뀔까봐 또 다른 장치를 마련했다. 전광은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형가를 격분시키기 위해”(欲自殺以激荊卿) 자신이 태자 단의 계획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른 태자 단에게 가서 전달해 달라고 하고, 형가 앞에서 목을 그어 자살하였다(㉔-8). 요컨대 형가는 자신을 알아준(知己) 전광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부탁한 탓에 태자 단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 3.3. 준비

형가가 오랜 침묵 끝에 태자 단의 부탁을 듣자, 태자 단은 형가를 상경(上卿)으로 삼고, 가장 좋은 집(上舍)에 머물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태자가 매일 형가를 찾아가 최상급의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기이한 물건도 사이사이에 바쳤고, 수레와 기마, 미녀도 형가가 원하는 만큼 갖도록 하여서 그 뜻을 맞춰주려고 했다(㉔).<sup>24</sup> 형가를 극진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24 『사기』 권86 「자객열전」 ① 然後許諾。於是尊荊卿爲上卿，舍上舍。太子日造門下，供太牢

다만 주의할 점은 태자 단은 극진한 대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목표를 형가에게 전했다는 점이다.<sup>25</sup> 태자 단은 형가로부터 전광의 죽음을 전해 듣고 슬퍼하다가 ①-1) 잠시 후 형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①-2). 먼저 언나라가 처한 국제 상황을 설명한 뒤 “진나라를 당할 수 없는데 다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함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천하의 용사를 진나라에 보내 커다란 이익을 미끼로 삼아 탐욕스러운 진왕을 끌어내면 된다. 옛날 조말이 제환공에게 했던 것처럼 진왕을 겁박하여 빼앗긴 땅을 돌려받도록 하자.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를 찢어 죽이면 된다. 진나라 장군들이 바깥에서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부에서 난이 일어나면 군신이 서로 의심하게 될 터이니 이렇게 되면 제후들이 함종을 해서 진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것을 형가 당신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형가는 한참 동안 있다가(久之) “이런 국가의 대사를 맡기에 부족하다”고 사양했으나 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집요하게 요청하자 겨우 허락했다(①-3). 사마천은 그리고 “이에(於是)” 태자 단이 형가를 극진히 대우했다고 서술했다(①-4). 자객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초한 물품 제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sup>26</sup>

具, 異物間進, 車騎美女恣荊軻所欲, 以順適其意.”

25 『사기』 권86 「자객열전」 “①-1 荊軻遂見太子, 言田光已死, 致光之言. 太子再拜而跪, 膝行流涕, 有頃而後言曰: 「丹所以誠田先生毋言者, 欲以成大事之謀也. 今田先生以死明不言, 豈丹之心哉!」 ①-2 荊軻坐定, 太子避席頓首曰: 「田先生不知丹之不肖, 使得至前, 敢有所道, 此天之所以哀燕而不棄其孤也. 今秦有貪利之心, 而欲不可足也. 非盡天下之地, 臣海內之王, 其意不厭. 今秦已虜韓王, 盡納其地. 又舉兵南伐楚, 北臨趙; 王翦將數十萬之眾距漳、鄴, 而李信出太原、雲中. 趙不能支秦, 必入臣, 入臣則禍至燕. 燕小弱, 數困於兵, 今計舉國不足以當秦. 諸侯服秦, 莫敢合從. 丹之私計愚, 以為誠得天下之勇士使於秦, 闢以重利; 秦王貪, 其勢必得所願矣. 誠得劫秦王, 使悉反諸侯侵地, 若曹沫之與齊桓公, 則大善矣; 則不可, 因而刺殺之. 彼秦大將擅兵於外而內有亂, 則君臣相疑, 以其間諸侯得合從, 其破秦必矣. 此丹之上願, 而不知所委命, 唯荊軻留意焉。」 ①-3 久之, 荊軻曰: 「此國之大事也, 臣驚下, 恐不足任使。」 太子前頓首, 固請毋讓, 然後許諾. ①-4 於是尊荊軻為上卿, 舍上舍. 太子日造門下, 供太牢具, 異物間進, 車騎美女恣荊軻所欲, 以順適其意.”

26 Lei Yang (2024), *Narrative Devices in the Shiji*, Chapter 2,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더욱이 후에 형가는 태자에게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sup>27</sup> 형가가 길을 떠날 때에 “바람 소리는 소슬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노래했던 점을 생각하면, 태자 단이 형가에게 제공했던 것은 형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sup>28</sup>

태자가 조건을 내걸고서야 형가를 대우했던 것은 곧 그만큼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뢰 관계의 부족은 조급함으로 나타났다. 앞서 태자 단이 변오기를 받아들일려고 하자 국무가 이를 반대하며 변오기를 흉노로 보내고 인접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난 뒤 진나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태자 단은 “태부의 계획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㉑-3)라고 하며 국무를 압박하였다. 그러자 국무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태자 단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아 자기 대신 전광을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전광을 만난 태자 단은 이번에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㉑-1)라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형가를 만나서도 태자 단의 조급함은 바뀌지 않았다.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곧바로 본인의 계획을 상세하게 털어놓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태자 단의 조급함은 곳곳에 나타났다.<sup>29</sup> 형가가 태자 단의

---

Press에서도 『사기』 전반에 걸쳐 사용된 “故”, “於是” 등의 특별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 27 『사기』 권86 「자객열전」 “荊軻怒，叱太子曰：「何太子之遣？往而不返者，賢子也！且提一匕首入不測之強秦，仆所以留者，待吾客與俱。今太子遲之，請辭決矣。」遂發。”
- 28 『사기』 권86 「자객열전」 “太子及賓客知其事者，皆白衣冠以送之。至易水之上，既祖，取道，高漸離擊筑，荊軻和而歌，爲變徵之聲，士皆垂淚涕泣。又前而爲歌曰：「風蕭蕭兮易水寒，壯士一去兮不復還！」復爲羽聲慨，士皆曠目，發盡上指冠。於是荊軻就車而去，終已不顧。”
- 29 『사기』 권86 「자객열전」 “①-1 久之，荊軻未有行意。秦將王翦破趙，虜趙王，盡收入其地，進兵北略地至燕南界。太子丹恐懼，乃請荊軻曰：「秦兵旦暮渡易水，則雖欲長待天下，豈可得哉！」①-2 荊軻曰：「微太子言，臣願謁之。今行而毋信，則秦未可親也。夫樊將軍，秦王購之

부탁을 받아들인 이후 한참 동안(久之) 행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태자 단은 형가에게 “진나라 병사가 머지않아 역수를 건너오면 선생을 오랫동안 모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며 빨리 행동할 것을 재촉하였다(㉠-1).

그러자 형가는 마음만 급해서 준비 없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나라가 믿을 만한 신표를 준비해야만 진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그러기 위해서 진나라가 황금 천 근의 현상금을 걸어 놓은 번오기(樊於期)의 목숨과 연나라의 군사지도를 진왕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진왕이 자신을 만나줄 것이고 그때 비로소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2). 형가가 번오기를 설득해 자살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반면, 태자 단은 그저 진왕을 찌를 비수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을 뿐이다. 태자 단의 조금함과 달리 형가의 철저한 준비 태도가 대비되는 장면이다.

태자 단의 재촉은 형가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결여는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이는 앞서 전광에게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태자 단은 자신의 계획을 듣고 형가에게 부탁하러 자리를 뜨는 전광을 배웅하며 “내가 말한 것이나 선생이 말한 것은 모두 국가의 대사이니 선생께서는 누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때 전광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던 것이나(㉡-6), 형가를 격분시키기 위해 자살을 하는 순간에도 태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그대로 인용하며 “장자(長者)는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태자가 나를 의심했다. 절개 있고 의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남이 의심을 품도록 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고 했던 것도(㉡-9) 거사를 부탁하며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태자 단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태자 단 자신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결국 전광이 자살하자, 태자 단은 “큰일을 이루려

金千斤，邑萬家。誠得樊將軍首與燕督亢之地圖，奉獻秦王，秦王必說見臣，臣乃得有以報。」太子曰：「樊將軍窮困來歸丹，丹不忍以己之私而傷長者之意，願足下更慮之！」

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찌 죽음으로 이를 증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㉑-1).

상대방에 대한 신뢰 결여로 인한 의심은 다시 형가에게 그대로 옮겨갔다. 형가의 제안대로 진왕의 관심을 끌 만한 번오기의 머리가 준비되고(㉑-1),<sup>30</sup> 여기에 태자 단은 비수까지 마련하였지만(㉑-3), 형가는 길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㉑-2).<sup>31</sup> 자신의 거사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㉑-3). 거사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도 형가처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 적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태자는 마음이 급했다. 태자 단은 연나라의 진무양(秦舞陽)을 형가의 조수로 삼고자 했다. 13살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질러 사람들이 감히 대들지 못했던 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㉑-1). 즉 살인을 거리끼지 않는 잔인무도한 자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태자 단이 명검을 비싼 돈에 구입하여 독약을 발라 비수를 준비한 것도 단지 살인이라는 점에만 주목했던 단순한 태도였다. 오로지 진왕을 처단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살인을 위한 비수와 진무양을 준비했던 태자 단과, 거사를 결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따져 철저히 준비를 하려는 형가가 다시 한 번 대비되고 있다.

30 『사기』 권86 「자객열전」 “㉑-1 荊軻知太子不忍，乃遂私見樊於期曰：「秦之遇將軍可謂深矣，父母宗族皆爲戮沒。今聞購將軍首金千斤，邑萬家，將奈何？」於期仰天太息流涕曰：「於期每念之，常痛於骨髓，願計不知所出耳！」荊軻曰：「今有一言可以解燕國之患，報將軍之仇者，何如？」於期乃前曰：「爲之奈何？」荊軻曰：「願得將軍之首以獻秦王，秦王必喜而見臣，臣左手把其袖，右手搥其匈，然則將軍之仇報而燕見陵之愧除矣。將軍豈有意乎？」樊於期偏袒揜腕而進曰：「此臣之日夜切齒腐心也，乃今得聞教！」遂自剄。㉑-2 太子聞之，馳往，伏尸而哭，極哀。既已不可奈何，乃遂盛樊於期首函封之。㉑-3 於是太子豫求天下之利匕首，得趙人徐夫人匕首，取之百金，使工以藥淬之，以試人，血濡縷，人無不立死者，乃裝爲遺荊軻。”

31 『사기』 권86 「자객열전」 “㉑-1 燕國有勇士秦舞陽，年十三，殺人，人不敢忤視。乃令秦舞陽爲副。荊軻有所待，欲與俱；其人居遠未來，而爲治行。㉑-2 頃之，未發，太子遲之，疑其改悔，乃復請曰：「日已盡矣，荊卿豈有意哉？丹請得先遣秦舞陽。」㉑-3 荊軻怒，叱太子曰：「何太子之遲？往而不返者，豎子也！且提一匕首入不測之彊秦，仆所以留者，待吾客與俱。今太子遲之，請辭決矣！」遂發。”

태자 단은 형가가 자신이 선택한 조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도 참을 수 없었다. 태자 단은 형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형가가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날짜가 벌써 다했다. 그대는 다른 뜻이 있는가? 정 그렇다면 진무양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했다(㉑-2). 이 말을 들은 형가는 태자 단에게 결국 화를 냈다. “어찌 일을 이토록 가볍게만 보십니까? 이번 일은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이제 비수 한 자루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진나라로 가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내가 아직 머물고 있는 까닭은 흔쾌히 목숨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도와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꾸물댄다고 이토록 재촉하니 그러면 태자의 뜻대로 지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㉑-3). 요컨대 형가가 태자 단의 계획에 함께하겠다고 한 뒤, 태자 단은 줄곧 빨리 진나라로 떠나 거사를 완수하도록 재촉했던 것이다.

그런데 태자 단에게는 일을 빨리 거행하려는 조급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요한 순간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不忍)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번오기가 연나라로 오려 했을 때 태자 단은 곧바로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진나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엾은 번오기를 흉노로 보낼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다(㉒-3). 나아가 형가가 거사를 결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반드시 번오기의 목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태자 단은 “번오기가 곤궁해져 나를 찾아왔는데 나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차마 장자(長者)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다시 생각해 달라.”라고 했다(㉑-2). 이 말을 들은 형가는 태자 단이 차마 번오기를 희생시킬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하고 직접 번오기를 찾아가 그를 설득하여 자살하도록 했다. 그 단락 마지막에 번오기의 자살 소식을 들은 태자 단이 “달려가 그 시체 위에 엎어져 지극히 슬퍼하며 통곡하였다”고 한 것도(㉑-2) 여전히 그가 거사를 철저히 준비하려는 형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전광에게는 거사 계획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가가 태자의 재촉에 못 이겨 자신이 몰색한 동행자를 만나지 못한 채 출발하자, 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빈객과 함께 흰 옷과 관을 쓰고 그를 송별했다(㉠-1).<sup>32</sup> 역수 가에 이르러 길 제사(祖)를 지내며 진나라로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나서,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가 화답하며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이어졌다(㉠-2). 처음에는 슬픈 곡조로 불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는 심정을 노래한 뒤, 다음에는 격앙된 곡조로 자신의 결의를 드러냈다. 그때마다 사(士)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치솟을 정도로 함께 격앙되었다고 했다. 극도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출발에 많은 빈객, 사(士) 그리고 고점리까지 참가한 송별회가 열렸다는 것은 단지 형가의 심정을 그려내려는 것 외에 태자 단의 부주의한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 3.4. 결행

진나라에 도착한 형가는 진왕의 충신인 몽가(蒙嘉)에게 황금 천금에 해당하는 뇌물을 전달하였고, 몽가는 진왕에게 연나라 왕이 번오기의 머리와 연나라 군사 지도를 담아서 가져왔다고 전하자(㉠-1) 진왕이 크게 기뻐하여 성대한 의례를 갖추어 연나라 사신을 만나게 되었다(㉠-2). 역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해 가는 모습이 강조되었다.<sup>33</sup>

32 『사기』 권86 「자객열전」 “㉠-1 太子及賓客知其事者，皆白衣冠以送之。至易水之上，㉠-2 既祖，取道，高漸離擊筑，荊軻和而歌，爲變徵之聲，士皆垂淚涕泣。又前而爲歌曰：「風蕭蕭兮易水寒，壯士一去兮不復還！」復爲羽聲慨，士皆曠目，發盡上指冠。於是荊軻就車而去，終已不顧。”

33 『사기』 권86 「자객열전」 “㉠-1 遂至秦，持千金之資幣物，厚遺秦王寵臣中庶子蒙嘉。嘉爲先言於秦王曰：「燕王誠振怖大王之威，不敢舉兵以逆軍吏，願舉國爲內臣，比諸侯之列，給貢職如郡縣，而得奉守先王之宗廟。恐懼不敢自陳，謹斬樊於期之頭，及獻燕督亢之地圖，函封，燕王拜送于庭，使使以聞大王，唯大王命之。」㉠-2 秦王聞之，大喜，乃朝服，設九賓，見燕使者咸陽宮。”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sup>34</sup> 형가는 번오기의 머리가 담긴 상자를 받들고 먼저 나아가고, 진무양은 지도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받들고 뒤이어 진왕을 향해 나아가는데, 계단 앞에 이르러 진무양은 얼굴색이 새파래지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이를 본 진나라 군신들이 괴이하게 여겼다(㉠-1). 사실 형가가 연나라를 떠나기 전 걱정했던 일이기도 하다. 형가는 그저 잔인무도한 자라고 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을 수행할 만한 자를 구하여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태자 단의 성급하고 고집스러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이 실패할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때 앞서가던 형가가 뒤를 돌아보며 진무양을 보고 한 번 웃고 나서, 진왕에게 사죄하며 “이 친구는 북쪽 만이 출신의 촌놈이라서 한 번도 천자를 뵈는 적이 없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잠시 허락하신다면 제가 대왕 앞에서 사신의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2). 형가는 짐짓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진왕과 그 신하들을 안심시켜 차츰 어그러질 뻔한 상황을 수습하였다. 형가의 임기응변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진무양 대신 지도를 가지고 오라는 진왕의 명령에 따라 형가가 지도를 바치고, 진왕이 지도를 다 펼치는 순간 비수가 보이자 형가가 그 비수를 쥐

34 『사기』권86 「자객열전」 “㉠-1 荊軻奉樊於期頭函，而秦舞陽奉地圖柙，以次進。至陞，秦舞陽色變振恐，群臣怪之。㉠-2 荊軻顧笑舞陽，前謝曰：「北蕃蠻夷之鄙人，未嘗見天子，故振懼。願大王少假借之，使得畢使於前。」㉠-3 秦王謂軻曰：「取舞陽所持地圖。」軻既取圖奏之，秦王發圖，圖窮而匕首見。因左手把秦王之袖，而右手持匕首搃之。未至身，秦王驚，自引而起，袖絕。㉠-4 拔劍，劍長，操其室。時惶急，劍堅，故不可立拔。荊軻逐秦王，秦王環柱而走。群臣皆愕，卒起不意，盡失其度。而秦法，群臣侍殿上者不得持尺寸之兵；諸郎中執兵皆陳殿下，非有詔召不得上。方急時，不及召下兵，以故荊軻乃逐秦王。而卒惶急，無以擊軻，而以手共搏之。是時侍醫夏無且以其所奉藥囊提荊軻也。秦王方環柱走，卒惶急，不知所爲，左右乃曰：「王負劍！」負劍，㉠-5 遂拔以擊荊軻，斷其左股。荊軻廢，乃引其匕首以擲秦王，不中，中桐柱。秦王復擊軻，軻被八創。㉠-6 軻自知事不就，倚柱而笑，箕踞以罵曰：「事所以不成者，以欲生劫之，必得約契以報太子也。」於是左右既前殺軻，秦王不怡者良久。已而論功，賞群臣及當坐者各有差，而賜夏無且黃金二百溢，曰：「無且愛我，乃以藥囊提荊軻也。」”

고 왼손으로는 진왕의 옷자락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진왕을 침(搯)하였다. 비수는 몸에 닿지 않았다. 이때 진왕이 놀라 물러나 일어나는 바람에 옷소매가 찢어졌다(㉞-3). 형가의 1차 시도가 실패했던 장면이다. 하지만 사마천은 진왕을 찌르지 못한 것을 형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오히려 거사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형가의 노력으로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보았듯이 지도를 들고 가기로 했던 자는 진무양이었다. 이를 근거로 형가의 본래 계획을 복원하면, 형가가 먼저 번오기의 머리를 들고 가서 진왕이 이를 확인한 뒤 자연스럽게 왼쪽 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그 뒤를 따랐던 진무양이 지도를 바치고 진왕이 이를 다 펼치는 순간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가가 왼손으로 진왕의 몸을 제압하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잡아 진왕을 침(搯)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무양이 두려워 벌벌 떠는 바람에 형가가 대신 지도를 들고 가서 바치게 되었다. 이럴 경우 형가는 진왕의 앞쪽에 지도가 펼쳐진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애초 계획한 대로 탁자 옆쪽으로 비켜나서 기다리다가 진왕을 제압하고 비수를 잡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자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가는 진왕을 침(搯)하려고 왼손으로 진왕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탁자 앞쪽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제대로 제압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진왕은 놀라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소매가 찢어지게 되고 진왕이 검을 뽑을 상황이 가능해졌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사마천이 형가가 진왕을 자(刺)한 것이 아니라 침(搯)하였다고 적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후술하겠지만 다른 자객이 상대방을 자살(刺殺)했던 것과 달리 형가의 경우는 침(搯)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왼손으로 진왕의 옷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진왕을 침(搯)하겠다”는 표현은 형가열전에 두 번이나 똑같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형가가 번오기를 찾아가 자결을 부추길 때 자신이 “왼손으로 옷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 가슴을 침(搯)하여”(臣左手把其袖, 右手搯其胸) 번오기의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형가의 1차 시도에서 “왼손으로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들고 그를 침(搯)했다”(左手把秦王之袖，而右手持匕首搯之)고 했다. 그런데 형가는 2차 시도가 실패한 뒤 마지막으로 “일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그를 살려둔 채 겁박하여(生劫之)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어 태자에게 보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점은 태자 단이 형가에게 거사를 부탁할 때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태자 단은 “천하의 용사를 진나라에 보내 조말이 제환공에게 했던 것처럼 진왕을 겁박하여(劫) 빼앗은 제후들의 땅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비로소 진왕을 자살하라.”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가 “왼손으로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들고 그를 침(搯)했던” 행동은 살려둔 채 겁박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침(搯)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찌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조말이 비수로 제환공을 찌르지 않고 겁박하였듯이 진왕의 몸에 비수를 ‘가까이 대어 겁박하다’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1차 시도에 실패했지만 진왕의 검이 뽑히지 않아 진왕이 도망가고, 주변의 신하들은 무기가 없어 맨손으로 그를 내려치거나 하무저가 약주머니를 던져도 손에 비수를 들고 있는 형가는 오로지 진왕을 쫓아가기만 한 것은(㉔-4) 여전히 “살려둔 채로 그를 겁박하려는”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진왕이 검을 뽑아 형가의 왼쪽 허벅지를 베어 쓰러뜨리자, 형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진왕에게 비수를 던졌다(㉔-5).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며 자신이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이 시도의 실패 이유가 태자 단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㉔-6).

### 3.5. 그 후

형가의 거사가 실패한 이후의 서술은 진왕의 연나라 공격과 멸망, 고점리의 복수, 노구천의 독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진왕의 연나라 공격 부분

을 보자.<sup>35</sup> 형가의 시도가 실패한 후 크게 화가 난 진왕은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태자 단은 요동으로 도망갔지만, 진나라 장군 이신(李信)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였다. 대왕 가(代王 嘉)는 연왕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 진왕이 연나라를 급하게 공격하는 것은 모두 태자 단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연왕은 아들을 죽여 진나라에게 바치려고 했으나, 결국 연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는 태자 단이 목숨을 잃은 것은 물론 연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 또한 모두 태자 단의 잘못된 계획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태자 단이 거사를 계획할 때부터 국무가 간언한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고점리의 복수 이야기다.<sup>36</sup>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자 단과 형가의 빈객을 쫓자 모두 도망갔지만, 고점리는 결국 축(筑)에 납덩어리를 넣어 진시황을 내리치려 했다. 고점리는 형가가 연나라에 도착한 뒤 만난 지기(知己)였다. 고점리는 형가의 지기로서 그가 이루지 못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 고점리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라기보다는 형가의 지기로서 이루어졌다. 이 열전의 기본 주제인 “자기를 알아준 자를 위해 죽는다(士爲知己者死)”가 고점리에게서 다시 한 번 드러난 부분이다.

35 『사기』 권86 「자객열전」 ⑩ 於是秦王大怒，益發兵詣趙，詔王翦軍以伐燕。十月而拔薊城。燕王喜、太子丹等盡率其精兵東保於遼東。秦將李信追擊燕王急，代王嘉乃遺燕王喜書曰：「秦所以尤迫燕急者，以太子丹故也。今王誠殺丹獻之秦王，秦王必解，而社稷幸得血食。」其後李信追丹，丹匿衍水中，燕王乃使使斬太子丹，欲獻之秦。秦復進兵攻之。後五年，秦卒滅燕，虜燕王喜。”

36 『사기』 권86 「자객열전」 ⑪ 其明年，秦并天下，立號爲皇帝。於是秦逐太子丹、荊軻之客，皆亡。高漸離變名姓爲人庸保，匿作於宋子。久之，作苦，聞其家堂上客擊筑，傍徨不能去，每出言曰：「彼有善有不善。」從者以告其主，曰：「彼庸乃知音，竊言是非。」家丈人召使前擊筑，一坐稱善，賜酒。而高漸離念久隱畏約無窮時，乃退，出其裝匣中筑與其善衣，更容貌而前。舉坐客皆驚，下與抗禮，以爲上客。使擊筑而歌，客無不流涕而去者。宋子傳客之，聞於秦始皇。秦始皇召見，人有識者，乃曰：「高漸離也。」秦皇帝惜其善擊筑，重赦之，乃矐其目。使擊筑，未嘗不稱善。稍益近之，高漸離乃以鉛置筑中，復進得近，舉筑撲秦皇帝，不中。於是遂誅高漸離，終身不復近諸侯之人。”

마지막은 노구천이 독백이다.<sup>37</sup> 고점리가 형가의 지기(知己)가 보여준 모습이라면, 노구천의 말은 부지기(不知己)의 말이다. 이 부분은 형가열전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전을 마무리하는 사마천의 의도가 잘 담겨 있기도 하다.

嗟乎惜哉，其不講於刺劍之術也！甚矣吾不知人也！曩者吾叱之，彼乃以我爲非人也！

독백의 뒷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열전의 앞머리에 노구천이 형가와 육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노구천이 소리를 지르자 형가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다. 이제 노구천은 그때 형가가 자리를 떠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한다. “내가 정말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지난번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그는 나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겠구나.” 자신은 형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육박과 같이 별일 아닌 놀이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니 형가는 자신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후회했던 것이다.

문제는 독백의 앞부분 “嗟乎惜哉，其不講於刺劍之術也！”이다. 색은주(素隱注)는 일찍이 “불강(不講)은 불론습지(不論習之)를 일컫는다”고 풀이했고,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그 후 이 풀이에서 벗어난 이해는 없는 것 같다.<sup>38</sup> 즉 형가가 진왕을 찌르지 못한 것을 두고, 검으로 찌르는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형가가 진왕을 살해하지 못한 것은 마치 형

37 『사기』 권86 「자객열전」 “① 魯句踐已聞荊軻之刺秦王，私曰：「嗟乎，惜哉其不講於刺劍之術也！甚矣吾不知人也！曩者吾叱之，彼乃以我爲非人也！」”

38 한국어 번역인 『사기』(김원중 역, 민음사, 2022)에서는 “배우지 않았구나”라고 번역했고, 중문 번역인 『二十四史全譯』(漢語大詞典出版社, 2004)에서는 “講求”라고 번역했다. 영문 번역인 William H. Nienhauser ed. (2016), *The Grand Scribe's Records, Volume III: The Memoirs of Pre-Han China*, Indiana University Press, p. 375에서는 “did not study”라고 번역했다.

가의 검술이 부족해서라고 보았던 것인데, 이 부분이 열전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색은주의 이해를 따르면 형가열전 전체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문에서 줄곧 지적된 태자 단의 여러 문제가 덮이고 형가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표현된 자객으로서의 형가의 자질이 감추어졌다.

노구천 독백의 뒷부분이 형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부분도 그것과 연결시켜 읽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강’(講)을 ‘이야기하다’라는 원래의 뜻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형가가 옛날에 노구천에게 자검지술(刺劍之術)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열전의 앞부분에서 형가가 갑접과는 논검(論劍)을 했던 반면 이어서 등장한 노구천과는 육박을 하였을 뿐, 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노구천의 독백은 “옛날에 육박 놀이를 하다 형가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검지술에 대해서 형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비록 태자 단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왕 정을 찢었던 형가의 자검지술은 분명 뛰어나다. 지난 번 그로부터 자검지술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난 번에 도박이나 하다가 소리를 질렀으니 그는 나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겠구나.”라고 풀이된다.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노구천의 일화를 둘로 나누어서 앞쪽에는 도박 이야기만을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 검술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형가의 실패 책임이 형가의 검술 부족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오히려 훌륭한 자검지술을 가진 형가가 번오기의 머리를 준비하고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는 등 면밀하게 결행을 위한 준비도 했지만 결국 태자 단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형가열전의 서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4. 조말, 전제, 예양, 섭정열전과의 비교

형가에 앞서 기록된 4명의 자객은 단지 시간을 초월한 자객이라는 인간 유형을 그려내기 위해서 입전된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자객열전」의 주인공인 형가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으로서 등장했다. 이들에 대한 서사는 자객으로서의 형상과 함께 그들을 알아준 자(知己)와의 관계로 구성되는데, 모두 앞 장에서 설명한 형가의 서사 하나하나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 4.1. 조말

조말열전은 무척 짧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sup>39</sup> 앞부분은 조말과 그가 섬기는 노장공(魯莊公)과의 신뢰 관계를 서술했다(㉔-1). 먼저 조말은 용력(勇力)으로 노장공을 섬겼고, 노장공은 그 역(力)을 좋아했다고 했다. 평소 조말과 군주가 통하는 바가 있었다는 표현이다. 그 뒤 조말이 노나라 장군으로서 제나라와 전투를 벌였으나 세 번이나 패배했고 결국 노장공은 땅을 바치고 나서야 겨우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장공은 조말을 다시 장군으로 삼았다(㉔-2). 노장공의 조말에 대한 조건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태자 단이 조건을 제시한 이후 많은 재물을 제공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뒷부분은 조말이 제환공을 비수로 겁박한 사건을 기술했다. 조말은 제환공과 노장공이 가(柯)에서 만나 단 위에서 막 맹서를 마쳤을 때, 단 위로

39 『사기』 권86 「자객열전」 “㉔-1 曹沫者，魯人也，以勇力事魯莊公。莊公好力。㉔-2 曹沫爲魯將，與齊戰，三敗北。魯莊公懼，乃獻遂邑之地以和，猶復以爲將。㉔-3 齊桓公許與魯會于柯而盟。桓公與莊公既盟於壇上，曹沫執匕首劫齊桓公，桓公左右莫敢動，而問曰：「子將何欲？」曹沫曰：「齊彊魯弱，而大國侵魯亦甚矣。今魯城壞即壓齊境，君其圖之。」桓公乃許盡歸魯之侵地。既已言，曹沫投其匕首，下壇，北面就群臣之位，顏色不變，辭令如故。㉔-4 桓公怒，欲倍其約。管仲曰：「不可。夫貪小利以自快，棄信於諸侯，失天下之援，不如與之。」於是桓公乃遂割魯侵地，曹沫三戰所亡地盡復予魯。”

뛰어올라가 비수를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제환공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꼼짝할 수 없었다. 조말이 “강한 제나라가 약한 노나라를 너무 심하게 침략해서 노나라 도성 근처까지 쳐들어왔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제환공은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했다. 그러자 조말은 비수를 버리고 단에서 내려와 태연히 다시 군신의 자리에 서서 직분을 다했다(㉔-3). 화가 난 제환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자 관중이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제후들에게 신뢰를 잃고 천하의 지원을 잃게 되는 것보다는 땅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제환공은 이 말을 듣고 조말이 세 번 전쟁에서 져서 잃어버린 노나라 땅을 돌려주었다(㉔-4).

군주와 신하의 자리가 정해지고 엄격한 순서에 따라 회맹 의례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인 노장공은 물론 어느 누구도 단 아래에 있던 자가 단 위에 올라 회맹 의례를 주도하는 제환공의 목에 비수를 들이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조말은 짧은 비수를 사용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재빨리 상대방을 제압하고 겁박하였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었다. 바로 이 방식이 태자 단이 요청했고 형가가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마지막에 진무양이 빠지는 바람에 원래 겁박하려는 계획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도 형가는 이를 끝까지 따르려 했다. 결국 조말의 사례를 따르라는 태자 단의 요청 때문에 형가는 실패했던 것이다.

한편 조말의 경우는 형가의 경우와 달리 주군의 개입 없이 자객 홀로 계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누설의 염려나 주군의 의심이라는 상황도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공적으로 겁박을 해서 약속을 받아 내었지만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뒤 얼마든지 약속을 저버릴 수 있었다는 점을 부기한 점이다. 비록 조말이 제환공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지만, 관중의 간언이 아니었다면 최종적으로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중이 했던 말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제후들에게 신뢰와 지원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으며 제환공이 부득이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였던 것도 춘추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조

말과 같이 한 자루 비수로 군주를 살해하지 않고 산 채로 겁박하여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군주와 주변의 신하, 나아가 시대적 정치 윤리까지 필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태자 단이 조말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았지만, 설령 진왕 정이 약속을 했더라도 그가 약속을 지켰을지, 혹은 관중처럼 진왕이 약속을 지키도록 권할 신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4.2. 전제

「전제열전」은 오자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sup>40</sup> 오자서를 끌어들이는 것이 그가 초나라에서 도망가 오나라로 갔을 때 전제의 능력을 알아보았고 나중에 그를 공자 광에게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마천은 오자서가 오나라로 도망 온 이후 전제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전제를 추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적어 넣었다(㉠-1). 오자서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초를 공

40 『사기』권86 「자객열전」 “專諸者，吳堂邑人也。㉠-1 伍子胥之亡楚而如吳也，知專諸之能。㉠-2 伍子胥既見吳王僚，說以伐楚之利。吳公子光曰：「彼伍員父兄皆死於楚而員言伐楚，欲自爲報私讎也，非能爲吳。」吳王乃止。伍子胥知公子光之欲殺吳王僚，乃曰：「彼光將有內志，未可說以外事。」乃進專諸於公子光。㉠-3 光之父曰吳王諸樊。諸樊弟三人：次曰餘祭，次曰夷昧，次曰季子札。諸樊知季子札賢而不立太子，以次傳三弟，欲卒致國于季子札。諸樊既死，傳餘祭。餘祭死，傳夷昧。夷昧死，當傳季子札；季子札逃不肯立，吳人乃立夷昧之子僚爲王。公子光曰：「使以兄弟次邪，季子當立；必以子乎，則光真適嗣，當立。」故嘗陰養謀臣以求立。㉠-4 光既得專諸，善客待之。㉠-5 九年而楚平王死。春，吳王僚欲因楚喪，使其二弟公子蓋餘、屬庸將兵圍楚之濶；使延陵季子於晉，以觀諸侯之變。楚發兵絕吳將蓋餘、屬庸路，吳兵不得還。㉠-6 於是公子光謂專諸曰：「此時不可失，不求何獲！且光真王嗣，當立，季子雖來，不吾廢也。」專諸曰：「王僚可殺也。母老子弱，而兩弟將兵伐楚，楚絕其後。方今吳外困於楚，而內空無骨鯁之臣，是無如何我。」㉠-7 公子光頓首曰：「光之身，子之身也。」㉠-8 四月丙子，光伏甲士於窟室中，而具酒請王僚。王僚使兵陳自宮至光之家，門戶階陛左右，皆王僚之親戚也。夾立侍，皆持長鉞。酒既酣，公子光詳爲足疾，入窟室中，使專諸置匕首魚炙之腹中而進之。既至王前，專諸擘魚，因以匕首刺王僚，王僚立死。左右亦殺專諸，王人擾亂。公子光出其伏甲以攻王僚之徒，盡滅之，㉠-9 遂自立爲王，是爲闔閭。闔閭乃封專諸之子以爲上卿。”

격하고자 했으나 이를 반대하자, 공자 광이 오왕 료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할 때까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제를 공자 광에게 소개했다(㉠-2). 즉 공자 광이 직접 전제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오자서가 전제의 능력을 알아본 뒤 공자 광의 계획을 완수할 자로 판단하고 추천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형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태자 단이 직접 형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전광이 형가의 능력을 알아본 뒤 태자 단의 계획을 완수할 자로 판단하고 추천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도 분명하다. 두 곳 모두 개인의 원한을 갚겠다는 소재가 등장한다. 전제 부분에서는 오자서가 초나라 정벌을 주장했지만 공자 광이 이를 개인적 복수(私讐)이지, 오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반대했다. 공자 광이 “형제의 순서대로 양위한다면 계자찰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하나, 아들에게 양위한다면 나야말로 적자이니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라고 한 부분(㉠-3)을 기입한 것도 공자 광의 계획이 개인적 원한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형가열전에서는 반대로 국무가 태자 단의 계획이 개인적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즉 공자 광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정벌을 반대했지만, 태자 단은 스스로 개인적 원한에 따라 계획했던 것이다.

요컨대 전제열전에서 굳이 오자서를 등장시킨 것이나 형가열전에서 전광을 등장시킨 것은 두 케이스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오자서가 전제를 추천했다는 점은 전광이 형가를 추천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 오자서의 사적 복수를 반대했다는 것과 국무가 태자의 사적 복수를 반대했던 사실을 각각 기술한 것은 결국 태자 단이 사적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공자 광은 전제를 얻어 그를 객으로 잘 대우했다고 했는데(㉠-4) 공자 광이 전제를 알아주었다는(知)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자 광이 전제에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sup>41</sup> 그 시점

은 초평왕이 사망하여 상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서 오왕 료가 자신의 두 동생에게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하고, 삼촌인 연릉계자(延陵季子) 즉 계찰자는 진(晉)나라에 사신으로 보낸 상황이었다. 이때 초나라 병사가 오나라 군대의 퇴로를 끊어 세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공자 광이 오왕 료를 도와줄 수 있는 동생들과 삼촌 모두가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상황을 기다렸던 것이다. 공자 광이 전제에게 “이때를 놓칠 수 없다. 나아말로 진정한 왕의 후계자이니 내가 즉위하면 삼촌이 오더라도 나를 폐위할 수 없다.”고 했더니, 전제가 “오왕 료의 어머니는 늙었고 자식은 어리며, 두 동생은 초나라를 정벌하러 갔으나 초나라가 그 뒤쪽을 끊었으니 오왕 료를 살해할 수 있는 적기이고, 현재 밖으로는 초나라와 전쟁을 하고 안으로는 비어 있는데다 충직한 신하가 없으니 오왕 료를 살해하려는 자신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6). 즉 공자 광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뜻을 밝혔고, 전제는 즉각 그 뜻을 받아들여 오왕 료를 살해하겠다고 답했던 것이다. 『좌전』에는 “오왕 료의 어머니는 늙었고 자식은 어리므로 오왕 료를 살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sup>42</sup> 사마천은 여기에 두 명의 동생이 초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출국했고

41 원문에 “九年而楚平王死”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찍이 색은주에서 “『춘추』 소공 26년조에 ‘楚子居卒’이라고 되어 있고, 『사기』 「오태백세가」에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잘못되었다. 『사기』 「표」와 『좌전』 모두 오왕 료 11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 이래 이후의 주석과 연구는 모두 「자객열전」의 “九年而楚平王死”를 오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九年, 楚平王死”이 아니라 “九年而楚平王死”라고 한 것은 “9년에 楚平王이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자 광이 전제를 꺾으로 잘 대하기를 9년이나 지난 뒤에”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사기』 등 사서에서는 ‘~한 지 몇 년이 지나’라는 의미로 “~年而”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객열전」과 「오태백세가」 모두 전제의 거사가 일어난 날짜를 “四月丙子”라고 적고 있는데, 그 해를 양자가 달리 썼다고 보기 어렵다. 「오태백세가」에 따르면 오자서가 공자 광을 만난 시점을 오왕 료 5년이라고 보았는데, 이때부터 9년이라고 하면 「오태백세가」에서 거사가 일어난 해를 오왕 료 13년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초평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평왕의 사망을 계기로 거사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大事記 표기에 해당한다.

42 『좌전』 昭公 27년조 “王可弑也, 母老子弱, 是無若我何, 光曰, 我爾身也.”

삼촌 계찰자도 없는 상황을 추가했다. 공자 광이 가장 적당한 시점이 올 때까지 오랜 기간을 묵묵히 기다렸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태자 단의 조급함과 대비된다.

이렇게 전제가 응낙하자 공자 광은 머리를 조아리며 “내 몸은 곧 당신의 몸이다.”라고 했다(㉠-7). 자객과 그 후원자가 한 몸이라는 이 말은 그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 사실 전제는 오왕 료를 살해하기로 한 이상, 그 자리에서 자신도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전제의 응답은 곧 자신을 오랫동안 알아주어 잘 대해준 공자 광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다. 그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는 공자 광의 말은 더욱 강한 일체감이 담겨있다. 태자 단이 형가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실, 마지막에는 결국 형가가 태자 단에게 화를 내기에 이르렀던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그 이하 부분에서는 전제가 오왕 료를 살해한 사건을 서술했다(㉠-8). 전제도 조말의 경우와 같이 경비가 삼엄한 상황에서 비수 한 자루로 짧은 순간에 일을 처리했다는 점이 동일하다. 한편 이 부분에서 공자 광이 사건에 개입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공자 광은 무장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오왕 료를 초청하고, 전제가 오왕 료를 살해하자 매복시켜 놓은 병사를 출동시켜 오왕 료의 무리를 공격하는 일을 맡았다. 즉 공자 광은 전제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전제의 오왕 료 살해를 적극적으로 보좌하였다. 태자 단이 결행을 재촉하거나 형가가 동의하지 않았던 보좌역을 동행시키는 등 선불리 개입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마지막은 공자 광이 오왕이 되었고, 또 사망한 전제의 자손을 상경으로 삼았다고 맺고 있다(㉠-9). 앞서 공자 광은 전제를 객으로서 잘 대우했지만 과도한 선물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전제가 죽고 난 뒤에도 자객을 잊지 않고 자손을 상경으로 삼아 그에 상응하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즉 전제는 거사에 참여한 것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믿으며 후대했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알아주었다고 받아들였으며,

주군인 공자 광은 그런 자객을 끝내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태자 단이 거사를 허락하자 곧 형가를 상경으로 삼았다는 것과 대비된다.

### 4.3. 예양

「예양열전」은 자객이 여러 명의 주군 중 어떤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냐를 중심 주제로 삼는다.<sup>43</sup> 예양은 본래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를 섬겼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바가 없었다(無所知名). 그래서 이들을 떠나 지백을 섬겼는데 지백은 그를 매우 존중해 주었고 총애했다(㉑-1).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예양은 “사(士)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는다고 했다.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나는 반드시 지백의 원수를 갚고 죽겠다. 그

43 『사기』 권86 「자객열전」 “豫讓者，晉人也，㉑-1 故當事范氏及中行氏，而無所知名。去而事智伯，智伯甚尊寵之。㉑-2 及智伯伐趙襄子，趙襄子與韓、魏合謀滅智伯，滅智伯之後而三分其地。趙襄子最怨智伯，漆其頭以爲飲器。豫讓遁逃山中，曰：「嗟乎！士爲知己者死，女爲說己者容。今智伯知我，我必爲報讎而死，以報智伯，則吾魂魄不愧矣。」㉑-3 乃變名姓爲刑人，入宮塗廁，中挾匕首，欲以刺襄子。襄子如廁，心動，執問塗廁之刑人，則豫讓，內持刀兵，曰：「欲爲智伯報仇！」左右欲誅之。襄子曰：「彼義人也，吾謹避之耳。且智伯亡無後，而其臣欲爲報仇，此天下之賢人也。」卒酈去之。㉑-4 居頃之，豫讓又漆身爲厲，吞炭爲啞，使形狀不可知，行乞於市。其妻不識也。行見其友，其友識之，曰：「汝非豫讓邪？」曰：「我是也。」其友爲泣曰：「以子之才，委質而臣事襄子，襄子必近幸子。近幸子，乃爲所欲，顧不易邪？何乃殘身苦形，欲以求報襄子，不亦難乎！」㉑-5 豫讓曰：「既已委質臣事人，而求殺之，是懷二心以事其君也。且吾所爲者極難耳！然所以爲此者，將以愧天下後世之爲人臣懷二心以事其君者也。」㉑-6 既去，頃之，襄子當出，豫讓伏於所當過之橋下。襄子至橋，馬驚，襄子曰：「此必是豫讓也。」使人問之，果豫讓也。㉑-7 於是襄子乃數豫讓曰：「子不當事范、中行氏乎？智伯盡滅之，而子不爲報讎，而反委質臣於智伯。智伯亦已死矣，而子獨何以爲之報讎之深也？」㉑-8 豫讓曰：「臣事范、中行氏，范、中行氏皆眾人遇我，我故眾人報之。至於智伯，國士遇我，我故國士報之。」㉑-9 襄子喟然嘆息而泣曰：「嗟乎豫子！子之爲智伯，名既成矣，而寡人赦子，亦已足矣。子其自爲計，寡人不復釋子！」使兵圍之。豫讓曰：「臣聞明主不掩人之美，而忠臣有死名之義。前君已寬赦臣，天下莫不稱君之賢。今日之事，臣固伏誅，然願請君之衣而擊之，焉以致報讎之意，則雖死不恨，非所敢望也，敢布腹心！」於是襄子大義之，乃使使持衣與豫讓。豫讓拔劍三躍而擊之，曰：「吾可以下報智伯矣！」遂伏劍自殺。死之日，趙國志士聞之，皆爲涕泣。”

래야 영혼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복수를 다짐했다(㉑-2). 예양에 대한 지백의 대우는 예양의 조양자 살해 2차 시도가 실패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조양자가 “지백도 당신이 섬겼던 범씨와 중항씨를 모두 멸망시켰는데 어찌하여 복수를 하지 않고 지백의 신하가 되었는가? 왜 지백을 위해서만 이토록 끈질기게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묻자, 예양은 “범씨와 중항씨는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보답하였을 뿐이고, 지백은 나를 한 나라의 국사(國士)로 대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 자격으로 보답했다”고 대답했다(㉑-8). 단지 상하 관계로 맺어진 주군이 아니라 자객의 재능을 알아보고(知己) 그를 국사(國士)로 극진히 대우하는 주군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예양의 모습이 그려졌다. 태자 단이 형가를 지기인 전광을 통해 만났을 뿐 그를 진정 알아주었다고(知) 하기 어려운 것과 대비된다. 또한 예양이 복수를 다짐했을 때 지백은 이미 죽은 뒤였으므로 태자 단처럼 의심할 필요도 없고, 예양의 계획에 성급하게 개입할 여지도 아예 없다.

예양은 첫 번째 시도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형인(刑人)처럼 꾸며 조양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형인이란 중죄를 지어 육형을 받은 자로서 관청에서 노역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양은 궁에 들어가 조양자를 살해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려고 스스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이다. 예양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다시 몸에 옷칠을 발라 문둥이가 되고 숯가루를 먹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습을 바꾸고 재차 복수를 준비했다(㉑-3). 역시 거사를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조양자의 신하로 들어가 기회를 보다가 복수를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자신의 몸과 형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예양의 친구가 안타까워하자(㉑-4), 예양은 “그것은 두 마음을 품고 군주를 섬기는 것인데, 나는 그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쪽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답했다(㉑-5). 태자 단의 선부른 준비와 대비되며, 형가의 철저한 준비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조양자가 더 이상은 살려줄 수 없다고 하자, 예양은 “다시 한 번 내가 복수를 했다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대의 옷을 내리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조양자가 이를 허락해 결국 예양은 칼로 옷을 내리치고는 지백에게 보답을 하게 되었다며 자살했다(㉔-9).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끝까지 복수를 완성하려는 예양의 모습과 함께 그러한 복수 행위를 긍정해 주는 조양자의 모습이다. 조양자 살해에 실패했던 예양은 진왕 정 살해에 실패했던 형가와 대비된다. 그뿐만 아니라 형가가 진왕을 쫓아가며 겁박하려고 시도하다가 왼쪽 다리를 잘려 더 이상 겁박 시도가 어려워지자 최후에는 비수를 던져 끝까지 임무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 4.4. 섭정

「섭정열전」도 주군과 자객의 만남에 주목한다.<sup>44</sup> 첫 번째 부분은 섭정

44 『사기』 권86 「자객열전」 “㉔-1 聶政者，軹深井里人也。殺人避仇，與母、姊如齊，以屠爲事。㉔-2 久之，濮陽嚴仲子事韓哀侯，與韓相俠累有卻。嚴仲子恐誅，亡去，游求人可以報俠累者。至齊，齊人或言聶政勇敢士也，避仇隱於屠者之間。㉔-3 嚴仲子至門請，數反，然後具酒自暢聶政母前。酒酣，嚴仲子奉黃金百溢，前爲聶政母壽。聶政驚怪其厚，固謝嚴仲子。嚴仲子固進，而聶政謝曰：「臣幸有老母，家貧，客游以爲狗屠，可以旦夕得甘毳以養親。親供養備，不敢當仲子之賜。」㉔-4 嚴仲子辟人，因爲聶政言曰：「臣有仇，而行游諸侯眾矣；然至齊，竊聞足下義甚高，故進白金者，將用爲大人蠶繭之費，得以交足下之驩，豈敢以有求望邪！」聶政曰：「臣所以降志辱身居市井屠者，徒幸以養老母；老母在，政身未敢以許人也。」㉔-5 嚴仲子固讓，聶政竟不肯受也。然嚴仲子卒備賓主之禮而去。久之，聶政母死。㉔-6 旣已葬，除服，聶政曰：「嗟乎！政乃市井之人，鼓刀以屠；而嚴仲子乃諸侯之卿相也，不遠千里，枉車騎而交臣。臣之所以待之，至淺鮮矣，未有大功可以稱者，而嚴仲子奉白金爲親壽，我雖不受，然是者徒深知政也。夫賢者以感忿睚眦之意，而親信窮僻之人，而政獨安得嘿然而已乎！且前日要政，政徒以老母；老母今以天年終，政將爲知己者用。」乃遂西至濮陽，見嚴仲子曰：「前日所以不許仲子者，徒以親在；今不幸而母以天年終，仲子所欲報仇者爲誰？請得從事焉！」㉔-7 嚴仲子具告曰：「臣之仇韓相俠累，俠累又韓君之季父也，宗族盛多，居處兵衛甚設，臣欲使人刺之，(眾)終莫能就。今足下幸而不棄，請益其車騎壯士可爲足下輔翼者。」聶政曰：「韓之與衛，

과 엄중자의 만남 부분이다. 엄중자는 제인(齊人)으로부터 섭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몇 차례 찾아간 뒤 섭정의 어머니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황금 2천 량이라는 거액을 바쳤다(㉖-3). 그 액수만큼이나 그의 재능을 충분히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섭정은 그 액수에 깜짝 놀라 거절하였다. 섭정이 거절하자 엄중자는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는,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그대가 매우 의로운 자라고 들었다. 황금을 드린 것은 잘 사귀어 보자는 뜻이지 달리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㉖-4). 엄중자는 섭정의 재능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극진한 대우를 한 것이지 거사 참여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은 태자 단이 거사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대비된다.

한편 섭정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므로 지금은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엄중자는 그 뜻을 존중하여 주군과 빈객의 예를 갖추고 난 뒤 떠났다(㉖-5). 그리고 섭정이 원하는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중자는 나중에 섭정이 결심을 하고 찾아와 “당신이 복수를 하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자 비로소 자신의 원수가 한나라 재상 협루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㉖-7). 이 점은 엄중자가 섭정을 충분히 알아주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장례를 마치자 섭정은 엄중자를 찾아와 “시장에서 백정 일을 하는 별 볼일 없는 나를 높은 신분의 엄중자가 찾아와 어머

---

相去中間不甚遠，今殺人之相，相又國君之親，此其勢不可以多人，多人不能無生得失，生得失則語泄，語泄是韓舉國而與仲子爲讎，豈不殆哉！」㉖-8 遂謝車騎人徒，聶政乃辭獨行。杖劍至韓，韓相俠累方坐府上，持兵戟而衛侍者甚眾。聶政直入，上階刺殺俠累，左右大亂。聶政大呼，所擊殺者數十人，因自皮面決眼，自屠出腸，遂以死。㉖-9 韓取聶政尸暴於市，購問莫知誰子。於是韓(購)縣(購)之，有能言殺相俠累者予千金，久之莫知也。政姊榮聞人有刺殺韓相者，賊不得，國不知其名姓，暴其尸而縣之千金，乃於邑曰：「其是吾弟與？嗟乎，嚴仲子知吾弟！」立起，[……] 土固爲知己者死，[……] 卒於邑悲哀而死政之旁。晉、楚、齊、衛聞之，皆曰：「非獨政能也，乃其姊亦烈女也。鄉使政誠知其姊無濡忍之志，不重暴骸之難，必絕險千里以列其名，姊弟俱僇於韓市者，亦未必敢以身許嚴仲子也。嚴仲子亦可謂知人能得士矣！」

나에게 많은 황금을 주며 축수했던 것은 비록 내가 받지 않았지만 나를 무척 알아준 것(知)이다.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니 나를 알아준(知) 자를 위해 쓰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㉖-6). 앞서 엄중자가 섭정을 충분히 알아주었고, 그에 응해 섭정이 자기를 알아준 자에 대한 보답을 했던 것이다. 양자의 신뢰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뒷부분에 섭정의 누이를 등장시킨 것도(㉖-9) 섭정이 지기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한나라에서 자객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포상금을 걸었고, 이 소식을 들은 섭정의 누이가 “이는 내 동생이겠다. 아! 맞다. 엄중자가 내 동생을 알아주었던 적이 있지(知).”라고 했다. 누군가 섭정을 알아주었다면 섭정은 분명 목숨을 바쳐 그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섭정의 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섭정의 누이가 죽자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엄중자가 사람을 잘 알아보았다고 칭찬했던 사실을 추기한 것도 “자기를 알아준 자를(知) 위해 죽는다”는 전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엄중자가 섭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레와 말 그리고 장사들을 더 보태주겠다”고 하자, “사람이 많으면 생각을 달리하는 자가 생길 수 있고, 생각을 달리하는 자가 생기면 말이 새어나갈 것이며, 말이 새어나가면 한나라 전체가 당신을 원수로 여길 텐데,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수레와 말,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사양하고 섭정 혼자서 일을 거행하였다(㉖-8). 조말과 전제, 예양 모두 단독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섭정 역시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태자 단은 계획이 누설될 것을 걱정하다가 전광을 자살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송별까지 하였다.

섭정의 거사도 앞서의 다른 자객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졌다(㉖-8). 협루는 주변의 호위병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섭정은 거리낌 없이 다가가 검으로 협루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어 자살하였다.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

지만, 이는 결국 사후 일을 부탁한 엄중자와 누이의 안위를 면밀히 고려했던 것이기도 하였다.

## 5. 맺음말

『사기』 열전 중 합전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입전되어 있다. 각각 독립적인 개인의 열전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합전 내 인물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확인된다. 사마천은 합전 내 상호 비교라는 서사 방식을 통해 각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반면 유전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인간 유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된 합전과 달리 『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자객열전」은 춘추시기부터 전국시기까지 5명의 자객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士爲知己者死)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전이다. 그러나 「자객열전」은 다른 유전과 달리 「여불위열전」과 「이사열전」 사이에 놓여있다. 이는 형가가 「자객열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자객열전」이 진시황 시기 형가를 주연으로 두고 네 명의 자객을 조연으로 삼아, 이들의 이야기를 서로 긴밀하게 엮어가며 형가의 진왕 자살(刺殺)의 실패라는 주제를 풀어나갔던 서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형가열전은 기다림, 만남, 준비, 결행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으로 구분된다. 기다림의 부분에서는 형가에게 격검과 독서라는 재능이 있다는 점과 함께 몇 가지 일화를 통해 형가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知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랐음을 기술했다. 만남의 부분에서는 태자 단과 국무의 대화를 통해 태자가 꾸미려는 일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원한에서 출발한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고, 국무가 이를 사양하고 전광에게 전가했는데 그 전광이 바로 형가를 알아준 사람(知己)이라는 점을 고리로 태자 단과 형가가 만나게 되었

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형가로서는 자신을 알아준 자의 목숨을 희생한 부탁이었기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태자 단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준비 부분에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다. 일을 빨리 진행하려는 태자의 조급함은 그가 스스로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일을 완수해야 할 자객 형가 스스로 신중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을 왜곡시켰다. 진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왕이 흥미를 가질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했고, 또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희생하며 자신을 도와줄 자는 그만한 담력과 용기가 필요했다. 태자 단은 이러한 준비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조급했다. 단순히 독을 묻힌 비수를 마련하거나 잔인무도한 자를 구해 형가와 함께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행 부분에서는 태자 단이 결국 형가의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지만 형가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진왕을 겁박해서 땅을 되찾아 보려고 했던 태자 단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려 하면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음을 기술했다. 그 이후 부분에서는 형가의 지기(知己)인 고점리에 의해 복수가 재차 시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형가의 부지기(不知己)인 노구천의 독백을 통해 자객으로서의 형가를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사마천은 진왕 살해 실패의 원인을 형가의 검술이 아니라, 태자 단과 형가 사이에 형성되지 못한 신뢰, 태자 단의 어설픈 계획과 조급함, 개입, 불인(不忍)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형가가 원래 계획이 흐트러진 마지막에서조차 태자 단의 뜻대로 자살(刺殺)하지 않고 겁박(搦)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실패의 책임이 형가의 검술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다른 네 명의 자객 서사는 형가의 서사와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태자 단이 따라 하려고 했던 조말의 사례를 통해서는 무조건적인 신뢰 관계의 확립과 함께 일단 겁박에 의해서라도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할 시대적 분위기, 또 그렇게 간언할 관중과 같은 신하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서술함으로써 태자 단 계획의 무모함을 드러냈다. 전체의 사례에서

는 공자 광이 개인적 원한을 배제하고 오랫동안 최적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전제를 대우했음을 통해 태자 단이 개인적 원한에서 일을 꾸미고 또 이를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했던 점을 비판했다. 예양의 사례에서는 자신을 국사(國士)로 대우하며 자기를 알아주었던 주군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신념하에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형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태자를 위해 끝까지 그 계획을 완수하려던 형가의 모습에 대응한다. 섭정의 사례에서도 자객을 대하는 주군의 태도가 강조되었다. 일단 자객의 재능을 알았던 이상 조건 없는 엄청난 재물을 제공했고, 요청이 거절되었지만 섭정이 다시 자신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렸던 엄중자의 모습은 태자 단의 조건부 재물 공여, 조급함 등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엄중자가 섭정에게 일체의 과정을 맡겼다는 것이나 주군에게 미칠 해악을 없애려 얼굴을 훼손한 섭정의 행동은 그 반대편에 있는 태자 단의 의심과 형가의 분노를 비춰준다. 요컨대 사마천은 자객 4명과 그들을 알아준 주군과의 서사를 형가와 태자 단의 서사와 촘촘히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 참고문헌

- 김병준(2016), 「흉노열전의 ‘흉노 前史’ 기록 검토」, 『중앙아시아연구』 21-1.  
 김병준(2021), 「사마천은 왜 책을 덮었을까?: 『사기』 권74 맹자순경열전의 서사 분석」, 『동아문화』(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59.  
 김병준(2024), 「사마천의 풍자 그리고 합전의 서사: 『사기』 권71 지리자감무열전의 분석」, 『동아문화』(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61.  
 김원중·심은경(2024), 「『사기』 자객열전 ‘형가전’의 서사 기법 연구」, 『유학연구』 66.  
 사마천 지음, 김원중 역(2022), 『사기』, 민음사.

楊照(2019), 「酷吏列傳: 爲何酷吏總是成群地來」, 『史記的讀法』,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李紀祥(2007), 「歷史與歷史劇 - 『豫讓』 敘事與歷史塑成」, 『史記五論』, 文津出版.  
 許嘉璐 主編(2004), 『二十四史全譯』, 漢語大詞典出版社.

Lei Yang(2024), *Narrative Devices in the Shiji*,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William H. Nienhauser ed. (2016), *The Grand Scribe's Records, Volume III: The Memoirs of Pre-Han China*, Indiana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12일

## ABSTRACT

# Protagonist and Supporting Characters in the Categorized Memoirs of *Shiji*

Kim, Byungjoon\*

A Narrative Analysis of the  
'Memoirs of the Assassins'

In the *Shiji*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several individuals are featured in the combined memoir (合傳, *hezhuan*). Although these appear to be independent memoir of separate individuals, there are organic connections among the figures within each combined memoir. Sima Qian highlight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through a narrative technique of mutual comparison within the combined memoir. In contrast, the categorized memoir (類傳, *leizhuan*) are arranged not according to chronological sequence but are concentrated near the end of the *Shiji*,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reveal enduring human types that transcend time.

The “Memoirs of the Assassins” (刺客列傳) is a categorized memoir that unfolds around the theme “a knight dying for the one who recognizes him” (士爲知己者死), featuring five assassins from the Spring and 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s. However, unlike other categorized memoir,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chapter is positioned between the “Memoir of Lü Buwei” and the “Memoir of Li Si.” This placement indicates that Jing Ke is the central figure of the “Memoirs of the Assassin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moirs of the Assassins” constructs a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Jing Ke plays the leading role, while the other four assassins serve as supporting characters. Their stories are intricately interwoven to unfold the theme of Jing Ke’s failed attempt to assassinate the King of Qin.

Sima Qian attributed the failure not to Jing Ke’s swordsmanship, but to the lack of trust between Crown Prince Dan and Jing Ke, the prince’s clumsy planning and impatience, his interference, and his lack of resolve. In particular, Sima Qian emphasizes that even at the crucial final moment, when the original plan had collapsed, Jing Ke did not carry out the assassination as the prince intended, but instead attempted to threaten the king. By portraying this in detail, Sima Qian underscores that the failure should not be attributed to Jing Ke’s martial skills. To support this interpretation, Sima Qian constructs a narrative structure that systematically contrasts the stories of the four other assassins with that of Jing Ke.

**Keywords** Sima Qian, *Shiji*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Memoirs of the Assassins, Jing Ke, Crown Prince Dan, Cao Mo, Zhuan Zhu, Yu Rang, Nie Zheng

